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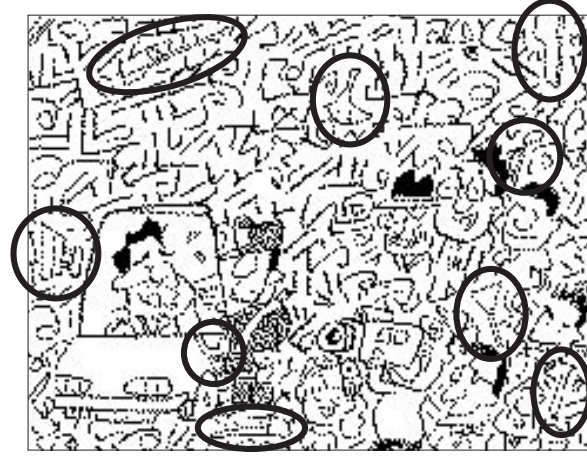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42>



찾아보세요 못, 서클, 다리미, A자, 바늘, 음표, 열대어, 송사리

외박 사유

마누라가 말없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 남편: 어디 가서 자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아내: 응, 내 친구 춘자네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남편이 아내 친구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남편: 남편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릴 하는거요? 아내: 아니 친구 남편 거시기가 죽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살려주고 왔어요. 남편: 뭐라고? 당신 미쳤어? 아내: 당신 거시기가 죽으면 춘자가 살려준다고 약속했어.



지난주 정답

다리미, 솔리퍼, 깔대기, A자, 못, 구두, 화살, 은행잎, 음표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서 여론매체부 ▲당첨자: 손정옥 <광주시 서구 풍암동> 조선형 <광주시 북구 두암1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95년 9월20일 광주비엔날레 첫 개막

1995년 9월20일 광주 중의공원 전시관 등에서는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 아래 국제 미술 전시회인 제 1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했다. 제 1회 광주 비엔날레에는 50개국 92명의 작가가 참가한 본전시와 249명이 참여한 6개 특별전 등 13개의 대형 전시회와 민속·무용·음악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11월 20일까지 62일 동안 문화의 향연을 펼쳤다.



지난 5일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한 2008 광주비엔날레.

문화적 전통과 민중적 시민정신을 예술로 승화해 광주를 아시아와 세계가 소통하는 기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된 광주 비엔날레는 이념과 국가, 종교, 인종을 뛰어넘어 21세기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설정해보자는 의미로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첫 행사를 치렀다. 2년 뒤인 1997년에는 '지구의 여백'을 주제로 한 2회 행사가 개최됐다. 광주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미술 전시회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시기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1999년 일정을 2000년으로 연기해 3회 행사를 개최했다. 2000년 3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개최된 제3회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人+間'으로 46개국 245명의 작가가 참여한 본전시와 5개 특별전을 통해 격변기를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아시아의 정신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했다. 제4회 2002년 광주비엔날레는 '멈춤, PAUSE, 止'라는 주제로, 세계 45개국 23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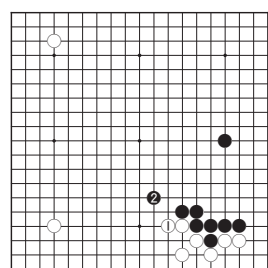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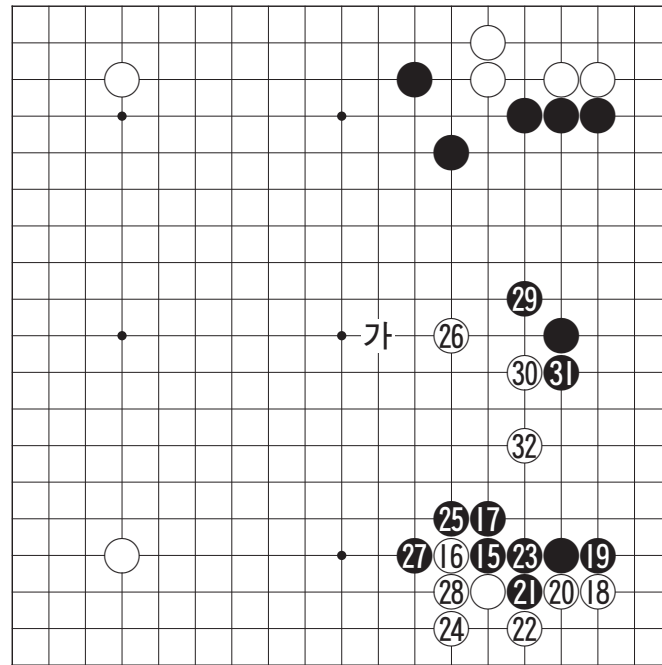
명의 작가가 참여해 2002년 3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최됐으며 기존에 시상해 오던 대상과 특별상을 없애고 유네스코상을 신설했다. 3월 막이 올랐던 3,4회와 달리 5회부터는 다시 가을 문화잔치로 9월부터 열리고 있으며 '먼지한물 물한방울'을 주제로 한 제 5회 전시이 이어 '열풍 번주곡'을 내세운 6회 행사가 치러졌다. 그리고 제7회 2008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5일 개막식을 갖고 11월 9일까지 6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비엔날레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오쿠이 엔위저 감독을 총감독으로 해 중의공원 문화벨트 내 비엔날레전시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대인시장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며, 특정 전시 주제를 내걸지 않고 '연례보고(Annual Report)-1년 동안의 전시(A Year in Exhibitions)'라는 전시 제목을 달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방비특대외

독특한 발상

개인전 결승전 2보 (15~32)

白 박광주 5단 黑 김영수 5단 (포스코) (전남교사회)



<참고도>

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정석에서는 흑 21로 찢러넣고 25로 밀어가는 것이 포인트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곳이다. 이때 백이 '참고도'의 1로 늘어주

는 것이 정수며 흑은 계속해서 2로 두어 모양을 키우게 된다. 박광주 5단이 25를 외면하고 즉시 26으로 달려가 삭감을 서두른 것은 조금 의외였다. 보통이라면 '참고도'와 같이 된 다음 삭감하는 것이 순리나 그렇게 되면 골이 깊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단 흑 27로 한방 때린 것이 기본종교 다음 흑 29로 지켰는데 이 수는 공격을 장기로 하는 김영수 5단답지 않은 소극적인 수였다. 이 수로는 일단 '가'로 모자를 씌워놓고 상대의 응수에 따라 다음 수를 결정할 자리였다. 백 32로 뛰어 백이 아연 활기를 띠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비특대해설위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리빙 센스

환절기에 좋은 마사지 팩

◇바나나팩

비타민과 당류가 풍부해 수분은 물론 피부에 탄력을 주는 등 보습력이 뛰어나다.

- ① 바나나 1/2개를 으개거나 강판에 곱게 간 후 꿀 1작은술과 밀가루를 조금 넣는다.
② 얼굴에 곱게 펴 바른 후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닦아낸다.

◇와인 꿀팩

와인과 꿀은 피부 보습은 물론 노폐물을 없애는 청정 효과가 있어 피부가 맑고 촉촉해진다.

- ① 마시고 남은 와인과 꿀을 1:2의 비율로 섞어 피부에 바르면 좋은 농도로 만든다.
② 얼굴에 바르고 15분 정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9월 17일(음 8월 18일 庚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September 17th.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굿모닝 잉글리쉬 <1147>

How do you like the big city?
그런 도시 어때?

A: How do you like the big city?
B: It's all right, but I don't like driving.
A: I'm used to the traffic in Toronto, so this doesn't bother me.
B: Yeah, I'm just not used to it yet.
A: 그런 도시 어때?
B: 괜찮아, 하지만 나는 운전하기를 싫어하는데.
A: 나는 토론토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B: 그래요, 저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을 뿐이에요.
* How do you like~? = ~은 어때?
* be used to~ = ~에 익숙해 있다.
* bother : 괴롭히다
* 저희는 그러한 악천후에 익숙해 있습니다.
= We're used to the bad weathe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47>

パソコンの練習(れんしゅう)かい
컴퓨터 연습이야?

A: 大川君, パソコンの練習(れんしゅう)かい.
B: そう, 僕(ぼく)タイプもまだうまく打(う)てなくて下手(へた)だから.
A: そう言えば, 佐木教授(きょうじゅ)は手書(てがき)のレポートは受(う)け付(つ)けなからしいからね.
B: えっ, 本當. 困ったなあ.
A: 오오카와군, 컴퓨터 연습이야?
B: 그래, 나는 타자도 아직 잘 못 치니까.
A: 그리고 보니, 사사키 교수님은 수기 레포트는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B: 예! 정말? 곤란한데.(미치겠군)
* うまく打(う)てない: 잘할수 없다
* そう言(い)えば: 그리고보니
* 手書(てがき): 수기, 손으로 쓰는 것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224>

什么时候回家?
언제 집에 돌아옵니까?

A: 什么时候回家?
shénme shíhòu huíjiā
B: 上午十一点回家。
shàngwǔ shíyī diǎn huíjiā
A: 公還远吗?
gōngyuán yuǎn ma
B: 不远。
bù yuǎn
A: 언제 집에 돌아오지?
B: 오전 11시에 돌아오.
A: 공원을 멀어?
B: 안 멀어.
什么时候 [shénme shíhòu] 언제
回家 [huíjiā] 집에 돌아오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383-1605

한자 이야기 <864>

五體投地(오체투지)
다섯 오, 몸 체, 던질 투, 땅 지

오체투지(五體投地)는 '다섯 가지 몸을 땅에 던진다'는 뜻으로, 신체의 다섯 부분 즉 양무릎, 양팔꿈치, 그리고 이마를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이다. 불교 신자가 삼보(三寶, 부처·가르침·승려)께 올리는 가장 공손한 큰절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춤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극히 공경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오체투지는 인간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배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도 스스로 고통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옹드려 온몸을 완전히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가 사용되고 있다. T.V에서 간혹 티베트사람들이 일생의 소원으로 라사를 향하여 오체투지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접한다. 그들은 하루에 10km 정도씩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이마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오체투지를 계속 한다. 그런데 이즈음 여기서는 서로 종교를 초월한 종교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체투지'를 통하여 사람과 생명의 소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티베트사람들이 신의 구원을 갈망하며 행하는 오체투지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위한 절실한 예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